

異型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

秦 弘 燮

一

우리가 異型이라고 呼稱하는 石塔 中에는 여러가지 形式이 포함되어 있다. 異型石塔의 概念은 始源樣式을 除하고 典型樣式에서 벗어나 樣式의 石塔을 總稱하는 말로서 基壇이 單層 或은 三層이거나, 上基壇에 獅子를 配置하거나, 塔身部가 層級에 따라 같은 比率로 遞減되지 아니한 塔 또는 一轉하여 佛壇같은 基壇으로 된 塔 등을 모두 異型石塔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異型石塔 中의 한 形式으로 基壇을 建築基壇 같이 表現하지 않고 石塊와 같이 만든 石塔이 있다. 이 形式은 다른 異形石塔이 基壇을 省略 或은 增設하면서도 建築基壇의 形式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對해 이 形式은 全히 形態를 달리하여 典型樣式과 何等的 樣式的 연관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壇基形式을 가진 石塔으로 慶州南山洞 東三層石塔(圖1)과 慶州西岳洞 三層石塔(圖2)을 들 수 있고 慶州 南山 葦長溪 頂上에도 이와 같은 形式의 破塔 一基가(圖3) 있다.

이러한 特異한 形式의 基壇은 典型的인 石塔의 基壇形式이 木造建築의 基壇에서 緣由한 바와 같이 發生緣由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 例示한 三基의 石塔에 관하여는 여러 先學들이 言及하여 왔으나 ①이 三基의 石塔이 모두 模倣塔이라는 점에서 模倣의 樣式에만 置重하여 考察하고 特異한 基壇形式에 관하여는 그 形式을 說明하는데 桴치고 發生緣由에 관하여는 全히 言及이 없었으나 李璟會氏가

模倣塔의 意匠手法를 살펴보면 屋身의 構成이 柱形이 없는 素面壁으로 된 點은 塔樣式을 徹底히 模한 것이요 單層基壇 亦是 屋身面



圖 2. 慶州西岳洞 三層石塔



圖 1. 慶州南山里 東三層石塔

과調和를 가져오게 하기爲하여 아무런 柱形도 模刻하지 않은 石塊로서 構成시킨 것은 單純하고 素朴한 感을 느끼게 한다②。

라고 하여 이 특이한 基壇形式이 塔塔構造에서 오는 屋身形式과의 調和를 이루기 위한 形式이고 따라서 柱形없이 形成된 것이라고 解釋하였다. 그러나 塔身과의 比例가 너무 커서 韓國內에 現存하는 어느 塔塔을 보아도 그러한 形式의 基壇이 없고 屋身部와의 比例도 맞지 않으며 柱形이 없을 뿐이지 全體의 造型上 調和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 形態에서 柱形을 볼 수 없었는 사실이나 그 사실을 들어 塔塔의 形式과만 관련시키려는 만족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基壇形式의 發生緣由는 塔塔의 形式을 떠난 別途의 觀點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一一

異型石塔의 하나로 우리는 慶州 南山 葦長溪 頂上 가까이 建立된 三層石塔(圖4)을 注目하여 왔다. 이 石塔은 葦長溪 頂上에 聳立한 岩山의 一鼻頭에 建立되어 後面에 岩山을 등지고 前面은 眼下에 慶州 南方의 平野를 조감하는 景勝의 地點을 擇하였다. 石塔 自體는 塔身部는 典型石塔의 塔身部와 다를바 없으나 基壇部에 있어서는 下基壇을 省略하고 岩頭 上面에 上基壇이 安全하게 서도록 간단한 시설을 하고 그 위에 一盤型 石塔과 같은 形式의 上基壇을 세웠다.

이러한 形式의 石塔은 다른데서 볼 수 없는 獨特한 것이지만 이 石塔에서 두 가지 點에 留意하여야 될 것이다. 하나는 이 石塔 自體의 形式이고 다른 하나는 占地에 관한 問題이다. 이 두 가지 問題點은 彼此에 直接的인 聯關性은 없으나 어느 一面에서는 어떠한 理由가 두 方向으로 同時에 작용하여 생긴 形式이라고도 생각된다. 즉 葦長溪塔에 關한 限, 前面이 開放되어 展望이 좋은 地點을 찾는 끝에 一岩頭를 擇하게 되었고 그 곳에 建塔하려 할 때 그 岩頭를 下基壇으로 삼고 上基壇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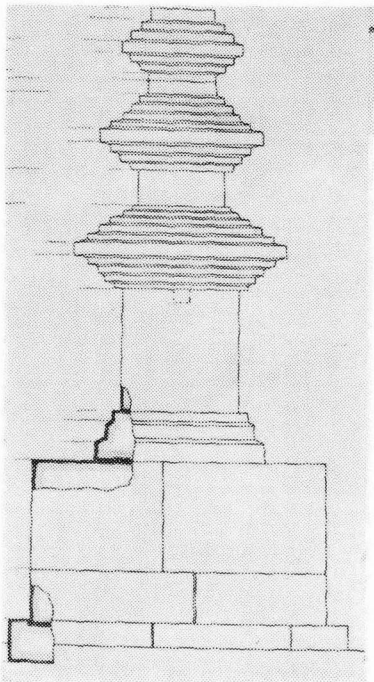


圖 4. 慶州南山葦長溪三層石塔



圖 3. 慶州南山葦長溪頂上破塔復原圖 (慶州南山의 佛蹟에서)



圖 5. 法界寺三層石塔

터를 建築하는 形式을 取했음은 彼此에 연관을 가지고 있는 듯이도 생각되나 이러한 地點을 택하여 建塔할 때 반드시 突出한 岩石만을 택하지 않은 예도 있다. 따라서 이 두 問題는 原則的으로 別途로 考察되어야 하겠으므로 먼저 下基壇을 省略하고 岩頭에 上基壇 以上을 建立한 石塔 自體의 形式부터 檢討하기로 한다. 이 葺長溪三層石塔은 突出한 岩石 表面에 높이 약 6cm의 괴임 二段를 마련하고 그 위에 上基壇 面石을 세웠다. 面石은 一面은 一石이고 三面은 二石식이어서 七枚板石으로 構成하고 隅柱와 撐柱 一柱가 模刻되었다. 甲石은 二枚 板石으로 덮고 밑에는 副緣一段이 있으며 위에는 角形塔身 받침二段이 있다. 塔身部는 各層의 屋身과 屋蓋石이 一石식이고 初層 屋身은 크고 二層과 三層은 급격히 작아졌으나 各層에 隅柱가 模刻되었다. 屋蓋石은 받침이 各層 四段이고 추녀는 直線이며 轉角 上面에 경쾌한 反轉이 있다. 相輪部는 全失되었고 三層 屋蓋石 上面에 擦柱孔이 있을 뿐이다.

이 石塔과 거의 同一한 形式을 取한 例로 慶南山 清郡 矢川面 中山里

法界寺의 三層石塔을 들어야 되겠다(圖 5). 境內 山神閣 앞에 巨大한 岩塊가 있어 이 岩塊 上面에 三段의 괴임을 마련하였는데 傾斜된 岩面에 괴임을 刻出하되 그 上面은 水平을 이루어 괴임의 높이는 一定하지 않다. 이 괴임 위에 넓은 隅柱形을 模刻한 一石으로 된 높은 初層 屋身이 놓여있다. 初層 以上의 屋身과 屋蓋石은 모두 一石식이며 二層과 三層의 屋身은 급격히 작아졌고 隅柱形은 初層과 같이 比較的 넓다. 各層 屋蓋石은 받침이 各各 三段이며 추녀는 轉角에 이르러 反轉되었다. 初層 屋身은 幅에 比해서 高가 높으며 屋蓋石은 두꺼워 高峻한 감을 준다. 隅柱形은 매우 넓고 屋蓋石 받침수가 줄고 轉角에 이르러 추녀 밑이 反轉되어 高麗時代의 石塔樣式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兩塔과 같이 岩頭에 建立하여 前面에 展開되는 景觀을 조감할 수 있는 위치를 택한 石塔을 慶州 南山에서 二基를 더 볼 수 있으니 即 鮑石溪石塔과 琵琶溪石塔이 그것이다.

鮑石溪石塔은 ③(圖 6) 南北은 완만하나 東西가 急傾斜를 이루는 一岩頭에 板石과 石塊로 方約 三·三m의 基壇을 構成하고 그 위에 方約 一·四m 두께 十九cm 내지 二七cm의 板石을 얹고 그 위에 石塔을 建立하였던 듯하나 上部는 完全히 붕괴되어 부근에는 塔身石으로 보이는 石材와 屋蓋石이 轉落되어 있었다고 한다. 調査者는 塔材의 形式이 扶餘 定林寺塔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혹 그 제작이 三國時代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見解를 표명하였으나 사실여부는 더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의 琵琶溪 石塔은 ④(圖 7) 岩盤에서 屹立한 方約 一·五m, 높이約 一·二m의 自然岩石을 약간 다듬어 基壇을 삼고 그 上面 中央에 是方約 六〇cm의 角形 二段의 괴임을 만들어 初層 塔身을 받게 되었다. 調査時 初層 塔身과 一層과 二層의 屋蓋가 基壇 밑에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以上 四基의 石塔의 形式을 보면 岩盤을 基壇으로 삼고 建立되었다는 점, 特히 岩盤 上面에 괴임을 刻出한 다음 그 위에 建立된 點은 全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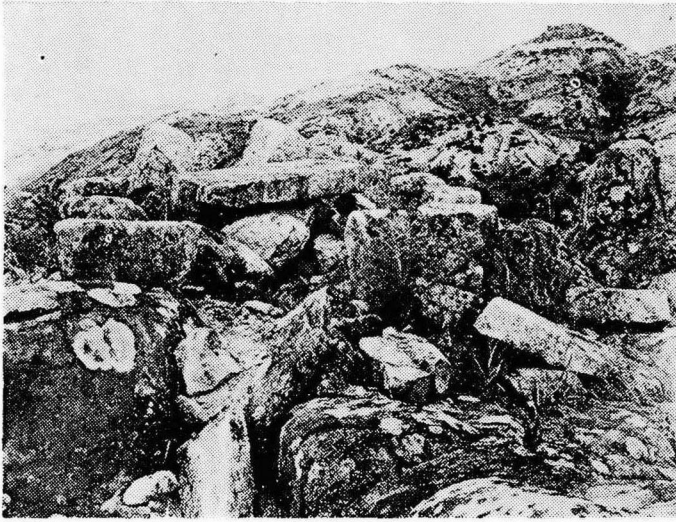


圖 6-1. 慶州南山鮑石溪破塔(慶州南山の佛蹟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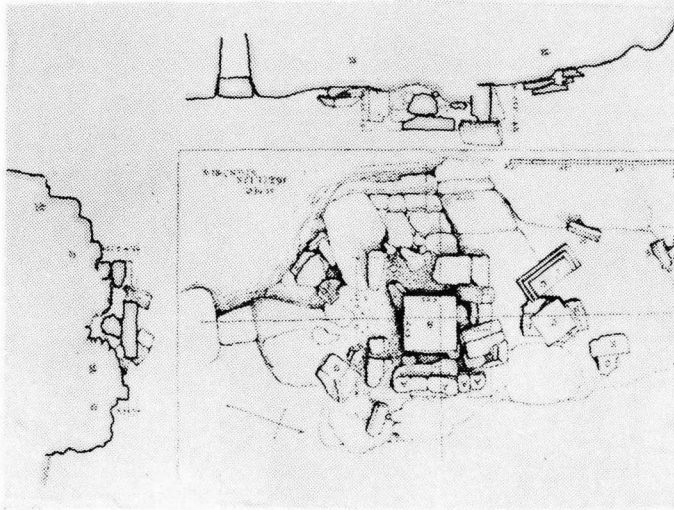


圖 6-2. 慶州南山鮑石溪破塔實測圖(慶州南山の佛蹟에서)

同一한 手法이지만 葺長溪塔이 上基壇부터 建立되었으나 法界寺塔에서 基壇部를 省略하고 塔身部 以上을 建立한 점은 相違點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岩石의 크기 또는 製作者의 意圖에 따른 것이고 어떠한 規則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三

이 慶州 南山 葺長溪塔·同鮑石溪塔·同琵琶溪塔·法界寺塔의 基壇部 形式을 前記 南山里東塔、西岳洞塔、葺長溪 頂上塔과 比較할 때 後者의

三基 石塔의 基壇을 形成하는 異型의 形式은 四塔에서 岩盤을 基壇으로 代置하려는 形式과 相通하는 意圖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後者의 三基 石塔의 基壇形式에서 隅柱形을 볼 수 없으므로 해서, 또 三基가 모두 模 倣塔이라는 點만으로 塔形式에서 緣由한 것이라는 解釋은 鮑石溪塔· 琵琶溪塔·法界寺塔과의 연관을 생각할 때 滿足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 觀點은 뒤에 다시 言及하겠지만 塔形式에서 온 것이라기 보다는 岩 盤을 基壇으로 삼는 前者 四塔의 形式을 占地問題와 의 複合的 영향 아래 適 當한 岩盤이 있는 地點을 求하기 어렵던지 또는 岩盤이 없는 寺院 境內에 建立하려할 때 基壇의 形態를 岩盤과 類似한 岩塊形으로서 代置한 結果라 고 생각된다. 南山里塔은 거의 平地에 建立 된 雙塔伽藍의 東塔이므로 葺長溪塔에서와 같은 岩盤은 없으며 西岳洞塔은 仙桃山 南麓 가까이 建立되어 附近에도 그러한 岩 盤은 없고 또 葺長溪頂上의 破塔 또한 그 밑의 三層石塔과 같이 基壇을 삼을만한 크 기의 岩塊는 없다. 이러한 狀況 아래서 葺 長溪三層石塔에서와 같은 岩盤 내지는 岩石 이 없을 때 그러한 形式을 살리고 同時에 前面이 開放되는 位置를 擇하는 意圖를 살 리려면 岩塊形으로 基壇을 築造하는 方法을 擇하는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誤解가 없기를 위하여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점은 葺長溪塔系의 自然岩盤을 利用한 基壇形式이 어떠한 先行樣式이 있어서 緣由한 것이라는 根據가 있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韓國石塔의 基壇形 式이 木造物의 基壇形式에서 緣由한 바와 같은 樣式的인 聯關係가 있는 것이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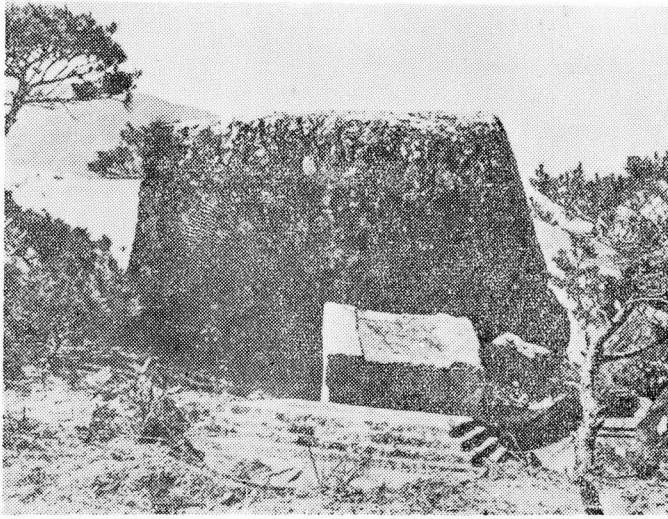


圖 7-1. 慶州南山琵琶溪塔(慶州南山の佛蹟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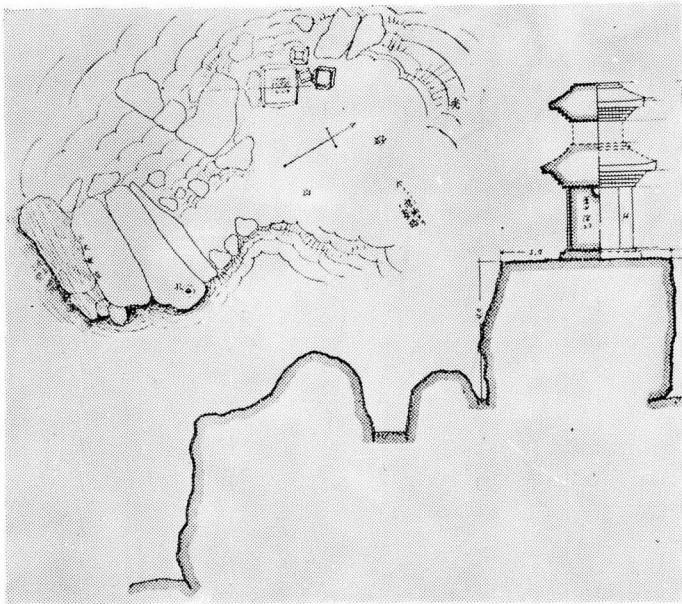


圖 7-2. 慶州南山琵琶溪破塔實測圖 및 復原圖(慶州南山의佛蹟에서)

立되었다는 점은 葦長溪三層石塔과 類似한 位置를 擇한것이고 立方體의 岩石위에 直接 塔身을 築造하여 岩石이 基壇이 된 形式은 法界寺三層石塔의 基壇形式과 같은 範疇에 속한다고 하겠다.

二、月城郡吾也里三層石塔(圖9) 月城郡 川北面 吾也里部落은 그 背後에 솟은 獨답山 西麓에 있고 이 山中腹에 五·五m×七·三m、 높이 三·六m의 巨岩이 突出되어 塔은 이 岩石 위에 建立되었다. 岩石 上面은 약간 平面을 이루었으나 二段으로 刻出된 別石을 놓아 塔身 괴임을 삼았다. 初層 塔身은 一石으로 되었고 隅柱가 模刻되고 南面에는 龕室을 開設하였는데 原來 門扉가 있었던듯 괴임돌 上面과 龕室 上部에서 밖으로 斗出한 楣石形 밑

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特異한 基壇形式은 葦長溪塔에서 獨연히 나타났으므로 建塔位置에 따라 그러한 基壇形式이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다시 葦長溪石塔의 基壇形式을 가진 몇 基의 塔을 例示하고자 한다.

四

一、英陽三池洞石塔(圖8)

英陽郡 英陽面 三池洞部落 뒤 急傾斜를 이루는 山中腹에 庵宇가 建立되었고 그 앞에 조그마한 平地가 있어 그 前面은 斷崖를 이루면서 河川에 臨하고 있다. 이 조그마한 平地에 忽然히 높이 二·九m의 自然岩盤이 솟았고 塔은 그 위에 建立되었다. 岩盤 위에 평평한 板石을 깔고 花崗石을 埽 모양으로 잘라서 築造한 模塼塔이 二層만 남아있으나 原來는 三層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初層 塔身 前面、即 河川을 向한 面에는 塔身 規模에 比하여 비교적 큰 龕室을 開設하였는데 龕室 바닥에서 小佛像 六軀가 發見된 일이 있다.

이 模塼塔이 前面이 開放된 山中腹에 솟은 塊體形 自然岩石 위에 建



圖 9-2. 月城吾也里三層石塔



圖 8. 英陽三池洞石塔

에 각각 구멍이 남아있다. 初層 屋蓋石은 넓은 편인데 밑에一段과 위에 三段의 層段이 있고 추녀 끝은 上下에 약간의 反轉이 있다. 二層塔身은 채감되었으나 隅柱가 있고 三層塔身은 없어졌으며 二層과 三層의 屋蓋石은 初層屋蓋石과 같은 形式이나 遞減되었고 損傷이 많다. 이 塔 역시 前面이 트인 地點에 있는 岩石 위에 基壇을 省略하고 곧 塔身部를 建立한 形式으로서 英陽 三池洞石塔과 同一한 計劃에 의한 塔이다.

三、安東大寺洞石塔(圖 10)
安東郡 吉安面 大寺洞 土日部落 뒤를 吉安川이 蛇行하면서 흐르고 그



圖 9-1. 月城吾也里三層石塔

西南方に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 솟고 그 中 한 봉우리를 中心으로 작은 平地가 있다. 이곳에 寺刹이 있었어도 작은 庵子 정도였을 것이고 山峰위에 세운 塔은 法堂앞에 세우는 格式과는 관련이 없는 位置이다. 이 平地 S字形으로 흐르는 吉安川과 土日部落이 眼下에 굽어보이는 地點에 一岩頭가 突出하였고 塔은 그 岩頭 위에 建立되었다. 塔은 不定形의 大小 板石形 石材를 使用하여 表面을 고르게 쌓은 總高二m의 模塼形石塔이다. 그다지 크지 않은 單層의 基壇을 쌓고 그 위에 약간 작은 塔身을 築造한 다음 넓은 屋蓋石을 올렸다. 屋蓋石에는 層段으로 된 받침이 있으나 整齊되어있지는 않고 現在의 上面狀態는 原狀이 아닌 듯하다.

이 塔은 規模가 작을뿐 이미 崩壞된 尙州의 石心灰皮塔과 同一한 手法이고 建塔位置에서 역시 前面이 展開되는 突出된 岩頭에 建立된 共通된 특징을 볼 수 있다.

四、淨岩寺水瑪瑙塔(圖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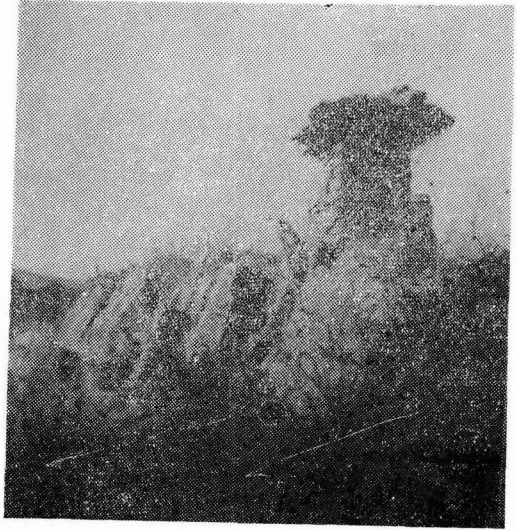


圖 10. 安東吉安模塼塔

淨岩寺에서 溪川을 건너 約一〇〇m 거리에 寂滅寶宮이 있고 그後面 急傾斜를 이루는 峰頭에 建立되었다. 이 峰頭에 傾斜를 따라 最高六段의 築臺를 쌓아 上面이 水平을 이루도록 만든 다음 初層塔身부터 七層의 塔身部를 築造하였다. 이 石塔은 塼形으로 자른 石材로 쌓은 模塼塔이며 初層 南面에는 龕室을 開設하고 門扉를 달았다.

이 塔이 建立된 地點은 매우 험준하여 다른 建築物이 세워질 여유가 없는 곳이다. 이 峰頭에 基壇을 省略하고 數段의 받침을 마련한 다음 곧 塔身部를 올린 形式이 前出 諸石塔에서의 形式과 大同小異하다. 다만 基底部에 岩石이 露出되지 아니한 점이 다르나 表土 밑에 岩盤이 있음은 附近 곳곳에 岩頭가 露出되어있는 점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五、神勒寺多層塼塔(圖12)

神勒寺 앞을 흐르는 漢江岸에 솟은 岩石 위에 花崗岩으로 層段式의 높은 石築을 쌓고 그 위에 紋樣塼으로 初層塔身부터 築造하였다. 塔 옆에 있는 修理碑에 의하면 立碑 年時가 英祖 二年(一七二六)이므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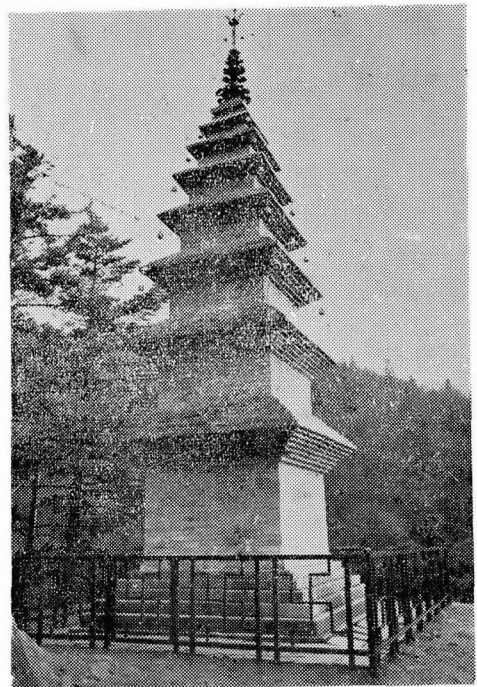


圖 11. 淨岩寺水瑪瑙塔

때에 相當히 變形되었으리라라는 推定은 韓國 塚塔의 形式에서 벗어나는 外形이 된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고로 塔身以下の 構造 또한 原形인지가 의심스럽지만 岩盤 위에 建築基壇 없이 築造한 形式은 同一한 形式이라고 하겠다.

六、堤川校里石塔(圖13)

堤川郡 錦城面 校里 塔洞 錦繡山 中腹에 큰 岩石이 있고 그 위에 파손이 심한 模塚石塔이 남아있다. 지금은 初層塔身의 一部와 그 밑의 石 材로 남아있으나 원래는 七層이었다고 한다. 岩盤 위에 塚形으로 차른 石材로 高一·一四m 幅四·〇五m의 立方體 石築을 쌓은 위에 다시 塚形 石材로 初層塔身을 築造하였다.

이 塔은 비록 完形이 아니나 山中腹에 솟은 岩石 위에 建築基壇아닌 立方體 石築을 쌓아 基壇에 대신하고 있는 점 前出 諸塔의 形式과 같다. 이 塔에서 西方 약 五〇m 지점에 建物址가 있다고 하나 伽藍配 置上에 연관이 있는지는 不明이다.



圖 12. 神勒寺多層塚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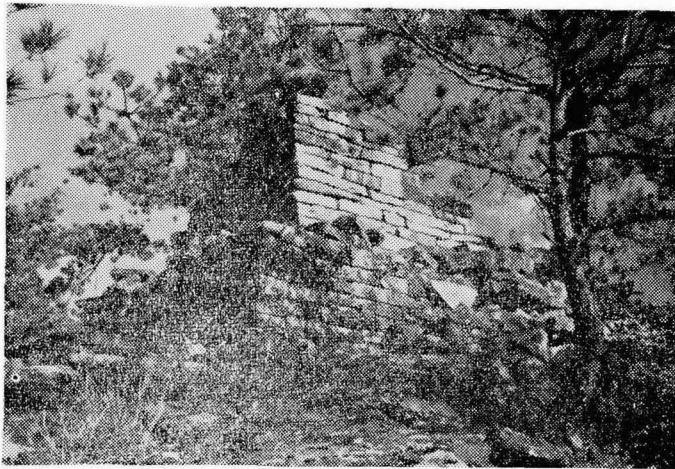


圖 13. 堤川校洞石塔

以上 列舉한 塔들이 가지는 共通點은
 ① 前面이 開放된 지점에 突出된 岩石 위에 建立된 점
 ② 建築基壇을 省略하고 岩石 위에 塔身部를 直接 建立하였거나 塔身部 밑에 別途의 岩塊形 石築을 마련한 점

들을 들 수 있다. 다만 이 六基의 塔이 塚塔 아니면 模塚塔이라는 점에 서 岩盤 위에 建立하는 形式은 塚塔 혹은 模塚塔에 限하는 特殊設計 같 이 解釋할 지 모르나 法界寺塔을 비롯하여 慶州 南山의 葦長溪頂上·鮑石溪·琵琶溪의 石塔이 塚塔이나 模塚塔이 아니면서도 同一하게 岩盤 위에 建立되었다는 점으로 해서 根據가 稀薄하다고 하겠다. 또 塚塔의 基壇形式이 얕은 單層基壇이고 模塚石塔、또한 이 形式을 따르고 있는

점으로 도 六基의 石塔이 塚塔 혹은 模塚塔인 까닭으로 岩塊로 基壇을 대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共通된 特徵은 塚塔·模塚塔을 莫論하고 岩盤 위에 세웠다는 점이다.

五

이상에서 우리는 葦長寺溪 石塔의 形式을 直模한 것이 法界寺塔이고 安東吉安塔、淨岩寺水瑪瑙塔、神勒寺塔、堤川校

洞塔이 모두 같은 系列에 드는 基壇形式임을 보아왔다. 그러나 自然的인 환경에서 이러한 岩石을 얻기 어려울때 그러한 基壇形式을 再現하려면 英陽三池洞塔이나 月城吾也里塔 같이 平地 또는 絶壁 가까이에 突出한 岩石을 利用하게 되고 그것마저 얻기 어려울때 人工의 形態를 表現한다면 慶州南山里東塔이나 西岳洞塔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눈을 돌려 自然岩盤도 없고 突出된 岩石도 없으나 前面이 展開된 景觀을 조감할 수 있는 地點을 擇하여 建塔한 몇 가지 例를 參考로 들어야 할 것 같다.

첫째 八公山 東南方 갓바위(冠峰) 北麓에 禪本庵이 있고 그 서편에 갓바위에서 뻗은 支脈이 거의 끝나려는 峰頭가 있어 그 위에 三層石塔이 建立되었다(圖14). 石塔의 形式은 二重基壇 위에 塔身을 重積한 典型을 充實히 따랐다. 이 石塔이 建立된 位置는 南으로 傾斜를 이루어 이 塔의 규모에 알맞는 寺宇가 설만한 여유가 없고 南方約二、五m의 거리에 石燈 臺石만이 남아있을 뿐이고 이곳에서 다시 南으로는 禪本庵을 비롯하여 溪谷一帶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地形의 선택은 華嚴寺四獅三層石塔의 경우와도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

다음에 安東 開日寺에 塔塔址가 남아있다(圖15). 寺刹에서 서쪽에는 土壘 같이 된 稜線이 南北으로 뻗고 그 南端은 急傾斜를 이루면서 끝났는데 이 南端 가까이에 塔塔址가 松林 사이에 남아있다. 塔址에는 積心石만 남고 그 위에 있었을 一切의 建築物은 없어졌으며 塔材가 약간 寺刹內에 保管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塔의 形式은 알 수 없으나 塔址에서 보면 南方으로 鶴駕山을 對하고 西後面의 山野가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같은 安東郡 北後面 場基洞 벽절부락에 또 하나의 塔塔址가 있다(圖16). 이 부근을 玉山寺址라고 傳稱되어오는 蹟으로 보아 혹 永嘉誌에 記錄된바 「在瓮泉驛南玉山之北」으로 위치를 明示한 「月川觀塔」이 아닐까 추측된다. 北方에 그다지 높지 않은 丘稜이 있으며 그 南麓에 약간 的 臺地가 있고 다시 南으로 急傾斜를 이루어 앞이 트인 곳에 建立되

었다. 이 좁은 臺地에는 寺宇가 설만한 여유는 없고 或 약간 떨어진 곳에 그만한 臺地가 있는 蹟으로 보아 法堂 앞에 建立되지 않았고 단독으로 이러한 地點을 택한 듯 하다. 塔은 完全히 붕괴되어 基壇을 구성했던 花崗石材가 남아있을 뿐이고 부근에서 塔材가 발견된다.

安東의 隣接郡인 英陽郡內에도 이러한 地點을 擇하여 建立한 模埭石塔二基가 있다. 하나는 英陽邑 縣二洞 模埭石塔이고 다른 하나는 英陽郡 立巖面 山海二洞 奉甘部 落에 있는 模埭石塔이다. 縣二洞石塔(圖17)은 英陽邑에서 東으로 約一km 地點에 있는 작은 河川 기슭에 우뚝 솟은 臺地가 있어 이곳에 石塔과는 關係가 없는 寺刹이다. 塔은 이곳에서 臺地 밑의 平野를 굽어 볼 수 있는 臺地 中心에 建立되었다. 石塔은 현재 四層만이 남아있으나 원래는 五層이 아니었던가 추측된다

奉甘石塔(圖18)도 이와 유사한 位置에 건립되었다. 비교적 넓고 높은 臺地를 감싸듯이 밀로 洛東江 上流가 구비쳐 흐르고 있어 이 臺地는 강줄기를 향하여 突出된 半島와 같은 형상이고 臺地 위에는 奉甘部塔이 들어섰으며 塔은 江이 내려다보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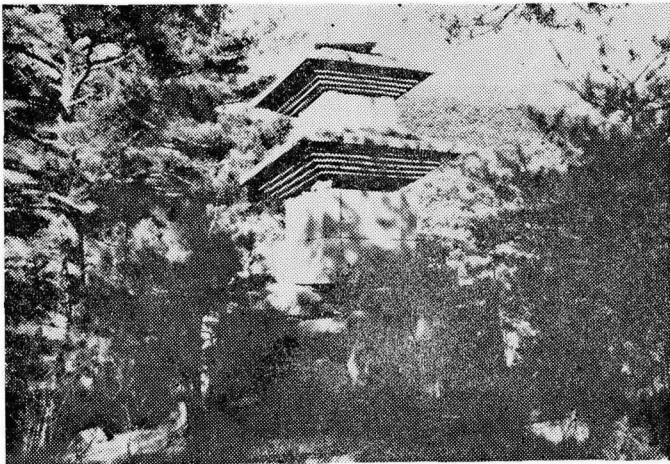


圖 14. 禪本庵三層石塔



圖 15-1. 安東開目寺塔址核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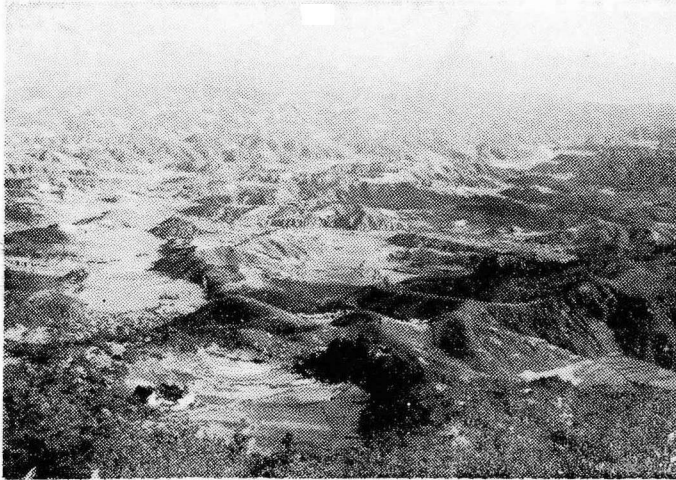


圖 15-2. 安東開目寺塔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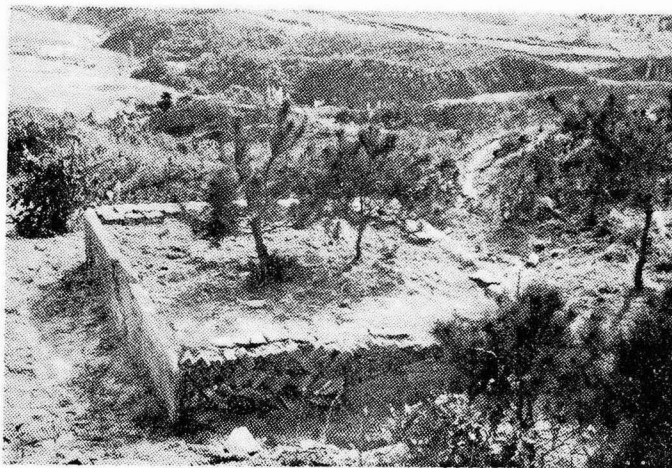


圖 16. 安東場基洞塔址

絶壁 가까이에 建立되었다. 塔은 五層塔身까지를 二洞의 塔과 거의 同一하다. 塔은 五層塔身까지를 남겼고 그 樣式은 縣 이상과 같이 建塔 位置를 선정함에 있어 峰頭에 接近하여 建立되지 않고 다만 높은 臺地에 建立되어 塔下에 景觀이 전개되는 地點을 택한 예는 이 외에도 있으니 江華河帖里五層石塔、金山寺深源庵北崗三層石塔、大興寺北彌勒庵三層石塔、光州西五層石塔、碧松寺三層石塔 등은 그러한 예들이다.

六

石塔을 建立함에 있어 峰頭에 露出된 岩盤, 아니면 臺地에 突出한 岩石 위를 擇하는 事例은 石塔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佛像 造成의 경우에도 볼 수 있다. 佛像은 堂內에 奉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露佛도 적지않으나, 露佛 中には 堂宇의 破毀로 露出된 것도 있어 당초 부터 露佛인 예는 磨崖佛을 除하고는 많지 않다. 이러한 露佛 中에 石塔 建立과 同一한 위치를 擇하여 造成된 例가 있으니 四佛山 四佛岩 慶州南山 葺長溪 石佛坐像, 同 葺長溪 石佛, 昌寧觀龍寺龍船臺石佛坐像, 八公山冠峰石造如來坐像 등을 들 수 있다.

四佛山 四佛岩(圖 19)은 이미 三國遺事에 眞平王代의 事蹟으로 記錄

되어 있다. ⑮ 「自天墜」하였다는 因緣은 「地中有唱佛聲命掘之得大石四面刻四方佛因創事」하였다는 ⑯ 掘佛山事蹟과 同一한 範圍이어서 그事蹟에만 깊이 拘碍될 필요는 없지만 夔慶 大乘寺의 主山이 四佛山이고 그 中腹에는 突然히 岩盤이 突出하여 밑이 絶壁을 이루었고 그 岩盤 위에 方形 石柱가 그야말로 「自天墜」한 형상으로 박혀있어 이곳에 四方佛이 조각되었다. 彫像은 마손으로 刻線이 분명하지 않으나 眞平王代까지는 올릴 수 있는 作品인지는 앞으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葦長寺溪 石佛(圖 20)은 三層石塔이 있는 地點에서 약간 밑에 位置하였고 역시 下界를 조감하는 듯한 곳을 택하였다. 特異한 臺座의 構造로 해서 일찌기 注目을 끌었으나 最下에는 巨大한 自然岩石이 솟아있어 이 위에 臺座를 築造한 點 本論에서 學論하는 石塔의 基壇 構造와 同一하며 그 上峰에 있는 三層石塔의 基壇과 도 같은 意圖임이 분명하다. 臺座를 이와 같이 높이 築成하였음이 天界에서 下界를 굽어보는 뜻을 表示하려는 意圖였다면 周邊의 山勢로 보아 이러한 形式이 필요하였던지



圖 17. 英陽縣二洞模磚塔

도 모른다.

다음에 三層石塔이 있는 위치에서 葦長寺溪를 隔한 東方의 大小의 岩塊 사이에 높이 二·三m, 徑約三·六m 이 巨岩이 솟고 그 위에 徑約二·二m, 두께約一·八cm의 蓮花圓座를 마련하여 그 위에 上半身을 잃은 石佛이 安置되어 있었다(圖 21). 지금은 이 石佛을 볼 수 없으나 原來 石佛이 安置되어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 岩石에 彫刻된 蓮花圓座는 곧 佛座를 뜻하는 것이고 보면 역시 突出된 岩石을 佛座로 삼아 그 위에 石佛을 安置하였음이 이러한 岩石을 基壇으로 삼아서 石塔을 建立함과 같은 意圖였음을 곧 알 수 있다.

昌寧 觀龍寺 後山에는 龍船臺라고 부르는 岩山이 있어 그 形狀이 마치 大乘寺 四佛山과 흡사하다. 이 岩山 위는 약간의 平地를 이루었고 여기서는 四圍에 重疊되는 大小山峰이 한 눈에 들어 온다. 이 岩盤 中央을 약간 加工한 다음 八각의 높은 蓮花臺를 설치하여 跏趺坐의 石像을 安置하였다. (圖 22) 이 岩山을 龍船臺라고 한 緣由는 알 수 없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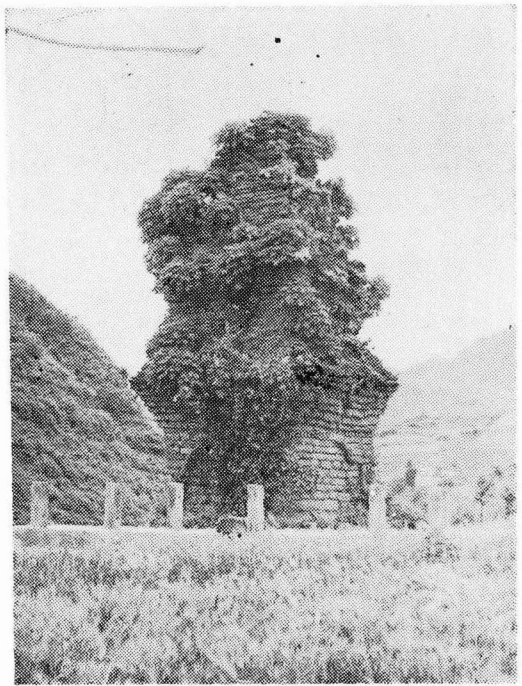


圖 18. 英陽山海二洞模磚塔

實로 頂上에 君臨하여 群峰을 威壓하는 形狀이 역연하다.

또 하나 이와 類似한 위치를 示明하여 造成한 石佛이 八公山 南峰인 冠峰에 있으니(圖 23) 前出 三層石塔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 石佛역시 冠峰 頂上에 岩石이 重疊한 가운데 一岩面을 택하여 佛身과 矩形의 臺石을 一石으로 造成하였는데 衣端이 臺座의 前面을 덮고있다. 그 위치가 또한 印峰, 露積峰 등 諸峰을 굽어볼 수 있는 해발 八五〇m 높이의 岩頭를 擇하여 造成하였다는 點이 前出 諸例와 全히 同一하다.

七

以上 慶州 南山 苜長寺溪, 鮑石溪, 琵琶溪 그리고 法界寺에 建立된 石塔이 基壇구성에 있어 특별한 형식을 취했음을 보았다. 이러한 基壇구성의 공통점은 岩盤을 직접 이용하거나 岩盤 위에 있는 岩石을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四基 中 三基의 石塔이 慶州 南山에 있다는 점은 慶



圖 19. 四佛山四佛岩

州 南山이 全山 岩山이어서 磨崖佛이 數없이 造成되고 그 외에도 無數한 石佛 石塔을 造營하기에 적당한 自然的인 환경에 基因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음은 이러한 基壇形式을 直模한 石塔이 멀리 慶州 南山 法界寺에서 建立되었고 이와 유사한 形式 또는 地點을 擇하여 建立된 石塔이 慶北 月城·達城·安東·英陽, 江原 旌善, 忠北 堤川, 京畿 驪州 等地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 상태를 분석하면 거의 八割이 慶州와 慶南地域에 있어 이러한 形式이 慶尙道를 中心으로 流行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基壇 構造는 石佛을 造成함에 있어서도 適用된 듯 하니 慶州에 三軀, 慶北에 二軀, 慶南에 一軀의 石佛이 佛座를 設置함에 石塔 基壇設置와 同一한 意圖가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點을 綜合할 때 慶州 南山里와 西岳洞, 南山 苜長溪의 石塔을 建立함에 岩塊形 立方體의 形式을 취한 緣由가 理解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形式의 基壇을 가진 石塔의 過半數가 模埵塔아니면 埵塔



圖 20. 慶州南山苜長溪石佛坐像 (慶州南山의佛蹟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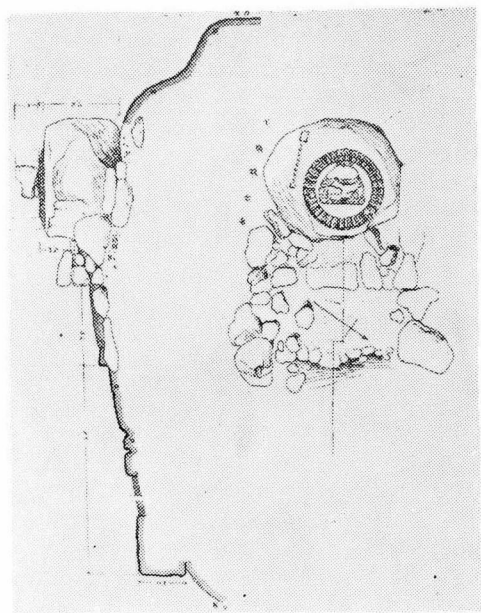


圖 21—2 慶州南山茸長溪石佛實測圖
(慶州南山の佛蹟에서)



圖 21—1 慶州南山茸長溪石佛
(慶州南山の佛蹟에서)



圖 23. 入公山冠峰石佛



圖 22. 昌寧觀龍寺龍船臺石佛

이라는 점으로 해서 塼塔과의 樣式的 연관을 찾으려 할지 모르나 이상의 列擧한 諸例를 통해서 볼때 妥當性이 희박하다고 생각된다는 점은 앞에서 累次 指摘한 바와 같다.

八

끝으로 添言하여 들 일은 石塔의 建立이나 石佛의 造成에 있어 어찌 하여 前面이 展開된 지점을 택하였느냐는 占地上의 問題이다. 또는 岩盤을 찾다보면 자연 그러한 지점을 택하게 되었는지 모르나 岩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地點을 擇한 예가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이 問題에 해결을 위하여 명확한 解答을 주는 資料를 찾지 못하였으나 論理의 限界를 벗어나야 간의 憶測을 開陳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이상 列擧한 여러 石塔의 建立年代 中에서 가장 오래다고 생각되는 것이 禪本庵三層石塔이다. 이 石塔은 서기 八五〇년을 전후한 시기의 建立으로 추측되고 이 石塔과 멀지 않은 곳에 全高四m의 巨大한 石佛이 조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新羅統一 初期부터 成立된 五岳尊崇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新羅의 中岳인 八公山을 中心으로 大小庵宇가 羅列하여 있고 塔像이 無數히 造營되었으니 그 北麓에 있는 三尊石窟을 비롯하여 八公山頂에는 높이 約六m의 大磨崖佛이 있음을 보아 전혀 無關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八世紀末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禪宗이 高麗時代가 되면서 더욱 盛行하여 九山의 禪門은 大部分 高麗時代에 開山되었고 이에 따라 일어난 山川禪補의 思想이 作用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上述한 그러한 地點을 擇한 石塔의 建立이 모두 九世紀以後로 推定됨은 禪宗隆盛과 時期가 같고 新羅時代에 建立된 數보다 高麗時代에 建立된 數가 더 많다는 점을 憶測의 근거로 指摘하여 본 것이다. 여하튼 이 問題는 앞으로의 考察이 있어야 하겠지만 연구할만한 課題라고 생각된다.

註

- ① 藤島亥治郎·慶州を中心とする新羅時代一般型及び變形三層石塔論一·二(建築雜誌 五七七號·五七九號, 一九三三)
- 杉山信三·朝鮮の石塔(彰國社, 一九四四)
- 小場恒吉·慶州南山の佛蹟(朝鮮總督府, 一九四〇)
- 高裕燮·韓國塔姿의 研究(同和出版社, 一九七五) 등이 있다.
- ② 李瓊會·韓國石塔樣式과 그 變遷에 관한系統的 研究(一九六四, 延世大碩士論文) 二〇〇頁
- ③ 小場恒吉·前掲書, 本文 二五頁, 圖版二十八, 二十九, 插圖一四
- ④ 小場恒吉·前掲書, 本文 四五頁, 圖版 五十八
- ⑤ 尹容鎮·慶北 英陽郡의 塔像(一)(考古美術 第四卷 第十一號, 一九六三)
- ⑥ 朴日薰·月城郡吾也里三層石塔(考古美術 第五卷 第五號, 一九六四)
- ⑦ 秦弘燮·安東吉安面模博石塔(考古美術 第六卷 第三·四號, 一九六五)
- ⑧ 鄭永鎬·淨岩寺水瑪瑙塔(考古美術 第一卷 第三號, 一九六〇)
- ⑨ 鄭永鎬·提川の 模博石塔(二基)(考古美術 第一卷 第二號, 一九六〇)
- ⑩ 秦弘燮·禪本庵三層石塔(考古美術 第六卷 第二號, 一九六五)
- ⑪ 이 塔址는 一九六五年 梨花女大 博物館에서 調査한 바 있으나 報告書 未刊이다.
- ⑫ 이 塔址도 一九六五年 梨花女大 博物館에서 調査한 바 있으나 報告書 未刊이다.
- ⑬ 尹容鎮·前掲書
- ⑭ 尹容鎮·前掲書
- ⑮ 三國遺事 卷三四 佛山 掘佛山 萬佛山條
- ⑯ 前同
- ⑰ 이 佛像은 小場恒吉의 「慶州南山の佛蹟」 本文 五十四頁, 圖版 六九 등에 서는 볼 수 있으나 지금은 볼 수 없다.
- ⑱ 鄭永鎬·八公山頂의 石佛 兩軀(考古美術 第二卷 第三號, 一九六一)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長)